

장성군, '어린이 교통안전' 행정력 집중한다

진원초 등 3곳 단속카메라 설치 계도 기간 거쳐 5월부터 단속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병행

장성군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장성읍 장성중앙초등학교와 진원면 진원초등학교, 삼계면 사창초등학교 등 총 3곳이다.

군은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병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까지의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카메라 운영 사실을 알리고,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5월부터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최근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14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23개소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했다.

정지표시장치, 좌석, 안전띠, 하차확인장치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통학버스 신고 △운전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어린이 보호표지, 보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4월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장성군이 중앙초 등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병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린이 안전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지역

내 모든 어린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인성·예절 지도사' 과정 운영 나주향교, 내달 25일까지

나주시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에서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이음 이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예절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는 문화재청, 전남도, 나주시가 주최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올해 10년차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동신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나주향교콘텐츠사업단'으로 새 운영진을 꾸렸다.

지난 21일 개강한 전통문화 이음 이 교실은 '인성·예절강사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개설돼 오는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경력단절 여성 교육생들을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혀 계승하는 '이음'로 육성하고 수료 후 전통문화 강사 활동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은 총 6회차로 30시간 이수와 필기,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오인선 나주향교 전교는 "이음 이 교실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전통문화 이음 이로서의 삶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향교콘텐츠사업단 관계자는 "교육생 모두가 좋은 전통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이음으로 육성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전통을 알리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문화 이음 이 교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주향교 굽은소나무 학교 공식 블로그(네이버)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박승엽 기자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운영 장성군, 귀농 성공사례 등

장성군은 지난 22일 상반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을 개강했다고 28일 밝혔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다. 상반기 교육 정원 50명이 공고 4일 만에 마감됐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교육 과정은 △귀농 성공사례 △귀농귀촌 이해와 설계 △기초 토양관리 △소형농기계 교육 △채소·과수 관련 기초 품목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초기 영농에 필요한 농업이론 교육은 물론,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품목별 멘토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90-7180)로 문의하거나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군민행복 아카데미' 개강 배우 김성환 강사 초청

화순군은 지난 2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2023년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개강해 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1회차 강연으로 배우 겸 가수인 김성환씨를 강사로 초청, '즐거움 인생이야'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250여 명의 수강생과 군민들이 참석해 강연장의 열기를 가득 매웠다.

김성환 강사는 강연에서 배우와 가수가 된 계기부터 인생에서 겪었던 어려움 등 다양한 에피소드 등 꾸준하게 발전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김성환 강사는 대표곡인 '인생'과 '보고픈 친구야'를 노래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장성읍 복지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장성군 장성읍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장성읍 상오리에 홀로 거주 중인 마을 어르신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다. 장성군 제공

영광군,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

영광군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향우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판촉 활동 강화를 통한 애향시 고취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는 농업유통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팩스·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대상자 선정과정 중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열람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 후 온라인 통합쇼핑몰(<https://jnmall.kr/>) 접속 후 회원가입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부담 25만 원을 낸 후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

아 당해 12월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친환경 원료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나섰다

전남신보와 업무협약 체결

영광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매출감소 등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전남도-시·군 공동출연과 별도로 영광군이 특별재원으로 총 4년간 4억원(매년 1억원 씩)의 금액을 추가 출연한다.



영광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광군 제공

40억원 보증규모의 특례보증 추진이 가능해져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한 저신

용 소상공인의 자금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최대 자금한도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매주 화요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영광사무소(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금리에 취약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 접수 화순군, 내달 14일까지

화순군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과수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농업 경쟁력 강화 △기계화 등 생산 여건 개선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 어려움 해소 △고품질 국내 과수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과수 재배농가로 보조금 미수혜 농가를 우선지원 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단위 최대 1000만원(보조금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로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지원내용은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SS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동력운반차 등 고품질 과수 생산관리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14일까지 해당 농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과수 농가들의 효율적인 과원 관리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